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느님,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우리들에게 장미꽃을 주신 하느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우리들에게 장미꽃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음에도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내는 우리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떠오르기를(마태 4,16) 희망해 봅니다.

교수신문은 작년 ‘2019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명조(共命鳥)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로,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었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설화 속에 등장합니다. 목숨(命)을 공유(共)하는 새(鳥)라는 뜻을 가진 공명조는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운명공동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의 극심한 이념 갈등, 계층 간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공멸해 가는 듯한 이 어두운 세상과 교회에 빛이 내려 한마음 한 몸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주일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과거 어둠 속을 걷는 우리에게, 암흑의 땅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던 해외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받았던 그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장민현 테오도로 신부 | 천사의 집 원장



제 1 독 서 이사 8,23ㄷ-9,3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10-13,17
복 음 마태 4,12-23

주일 진레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Aperuit Illis)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제정에 관한 교황 교서(요약)



1. 부활하신 주님과 신자 공동체와 성경이 이루는 관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는 주님께서 안 계신다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참으로 그러합니다. 곧, 성경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분 교회의 사명에 따른 여러 사건들은 이해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다음과 같은 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이사야서 주해』 [Commentarii in Isaiam], 서문, 『라틴 교부 총서』[Patrologia Latina: PL] 24,17)

2.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치며, 저는 ‘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그 주일을 온전히 하느님 말씀에 바쳐 주님과 주님의 백성이 나누는 끊임없는 대화에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부요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 7항)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례 주년의 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느님 말씀에 특별한 방식으로 봉헌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 말씀의 보고를 열어 주시는지 교회는 새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의 정의와 의의

3. 그러므로 저는 이 교황 교서를 통하여,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봉헌하는 날로 선언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 주일**은, 해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맺는 유대를 강화하고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초대받는 바로 그 기간에 시의적절하게 자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상의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 거행은 교회 일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이들에게 참되고 굳건한 일치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기 때문입니다.

강론의 중요성

5. 경청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일치 안에서 모든 이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목자에게 있습니다...특히 강론은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강론은 “거의 성사나 다름없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강론은,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에 비추어 보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7. 성경 곧 거룩한 경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분을 영광 속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하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루카 24,26 참조)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가장 오랜 신앙 고백들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3-5)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신화가 아닌 역사이고 제자들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신자들의 믿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에,(로마 10,17 참조) 믿는 이들은 전례 거행 중에도 또 개인 기도와 성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의 유익함

9. 바오로 성인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그의 충실한 협력자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에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어느 모로는 바오로의 영적 유언인 이 서간에는 다음과 같은 바오로 사도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2티모 3,16)

성경과 실천

13. 성경이 제기하는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당신 자녀를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 귀 기울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어 우리가 숨 막히고 메마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옛날 성경 저자의 가르침을 되새겨봅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신명 30,14)

아픔살기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지우 이야기: 190827, EBS 부모와 다른 아이들2, 장애를 극복하진 않았습시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굴러라 구르님' 채널을 운영하는 '구르님', 김지우입니다.
휠체어가 굴러서 '구르님'이고요. 사실은 '구르리'였는데, '님'자를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르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지은 거 같아요.



지우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우(모니카)는 제 고향 거창의 학교, 성당 친구 김태균(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딸입니다.

지우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다리뿐 아니라 온몸이 불편합니다. 지우는 그런 몸을 콤플렉스라 여기지 않고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구르다는 말에 '님'자를 붙여 자신의 별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차 등을 꾸미듯, 자신의 휠체어를 예쁘게 꾸밉니다. 지우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은 것 같아요. '님'을 붙이니까 저한테 반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단지 '님'자를 붙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지우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님'자를 붙였기에,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을 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고 초라하게 여기면 사람들도 나를 초라한 존재로 봅니다. 내가 나를 멋있게 자랑스럽게 여기면 사람

들도 나를 멋있게 봅니다.

이웃을 '장애인'으로 보는 시선은 절대 배려가 아닙니다. '극단적 혐오'와 '극단적 배려'는 같은 시선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참 배려는, 있는 그대로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개인 채널에 올릴 영상 찍는 건데, 채널에 악플을 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악플은 워낙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건 한번 말하고 싶었거든요.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는 게 민폐다.' 이런 말이 워낙 많으니까.

악플(악성댓글)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글로 하는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이지요. 하지만 지우는 그런 악플에 위축되거나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긍정적 소통을 시도합니다. 친구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무엇이 진짜 '민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김지우가 민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당연하죠. 김지우 진짜, XX 민폐예요.
매운 것도 못 먹으면서 맨날맨날 매운맛을 고집하고, 그리고 배 아프다 그러고, 화장실에 계속 들락거리고, 야! 김지우, 문 닫고 싸!
결론, '김지우의 장애가 민폐다.'가 아니고, '김지우의 성격이 민폐다.' ㅋㅋㅋ.

물론 지우의 성격도 민폐가 될 만한 게 아닙니다. 몸의 장애가 민폐가 될 수가 없다는 유쾌한 표현일 뿐이죠. 지우는, '장애인 김지우'가 아닌 '김지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사랑

엄마 김현미(베로나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날 낳은 걸 후회 안해?”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우리한테 소중한 딸인데, 그런 얘기를 묻는다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렸어요.

“엄마, 아빠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엄마 딸인 게 엄마는 좋고, 네 동생(김지원)이 엄마 딸인 게 엄마는 좋다.”

이런 부모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지우를 스스로 당당하게, 그리고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 힘이 되었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비싼 것 먹이고, 비싼 옷 입히고, 비싼 집에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녀도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풍족해 좋지?”, “부족해 미안하다”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아픔을, 아픔이 아닌 삶으로 살기

장애가 있음에도 잘 사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는 건, 내가 저런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 여기고 열심히 살겠다는 건, 그 장애를 삶의 아픔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삶의 수많은 다른 조건들도 아픔이라 여기며 괴로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우는 장애를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게 자신의 모습임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호랑이처럼 강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은행나무처럼 수백년을 살지 못한다고 그것을 아픔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평범한’ 내 모습이라 여기고 기쁘게 살고자 합니다.

‘아픔살기’는 ‘아파도 참고 산다’, ‘아프지 않기만 기대하며 버텨낸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을 아픔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기에 오히려 더 은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요즘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의문점이 생겼어. ‘장애 극복’, 이 말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장애를 극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극복이라는 말은 보통 ‘역경을 극복했다’, ‘고난을 극복했다’처럼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쓰는 말이잖아. 그렇다면,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장애를 고난이나 역경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말 아닐까? 예를 들어, 장애를 극복했다, 라고 하면, 장애인이 갑자기 비장애인이 된다는 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나 이거지. 이런 말을 쓰는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심지어, 장애이해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보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비장애인이 만들고 비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아닐까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장애극복이라는 말, 맞는 말일까?** - 1분 구르님.

삶을 극복한다, 맞는 말일까요? 삶은,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지금 이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안 아파도, 더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행복한 사람은, 더 아파도, 덜 가져도 행복합니다.

“보시니 좋았다.”(창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당연하고 평범한’,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차기병(F. 하비에르) 신부
1988년 2월 2일



교구장 동정

교구평협 총회

일시: 2월 1일(토) 16:30
장소: 마산 웨딩그랜드

〈사목대담, 교구장에게 듣는다〉 방영 안내

평화방송

본방송 : 2020년 1월 18일(토) 07:00
재방송 : 2020년 1월 26일(주일) 24:00
2020년 1월 28일(화) 13:00
2020년 1월 29일(수) 03:00

교구/분당

복학예정 신학생 피정

일시: 1월 29일(수)~30일(목) 1박2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문의: 성소국 055·249·7061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1월 29일(수) 10: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전국 총대리 회의

일시: 1월 30일(목)
장소: CBCK

청소년 성교육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일시: 기본교육 2월 1일(토)~2일(주일)
심화교육 2월 29일(토) 09:30~18:0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신양대학 개강 및 입학미사

일시: 2월 1일(토)~2일(주일)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군중후원회 총회

일시: 2월 1일(토) 16:00
장소: 교구청
문의: 군중후원회 055·249·7113

교구평협 정기총회

일시: 2월 1일(토) 14:00
장소: 마산 웨딩그랜드
문의: 군중후원회 055·249·7114

레지아 평의회

일시: 2월 2일(주일) 14:00
장소: 교구청
문의: 레지아 055·249·7115

201차 ME주말 안내 (2박 3일)

일시: 2월 21일(금) 19:00~23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 202차 ME주말: 2020년 4월 17일(금)~19일(주일)
● 203차 ME주말: 2020년 6월 12일(금)~14일(주일)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시: 2월 2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1·9207·8856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병원 미사 안내

마산: 마산의료원 매주(화) 18:00
지하 1층 대강의실
삼성병원 매주(금) 18:00
지하 6층 회의실
창원: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주: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암센터 지하1층 천주교 원목실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첫째 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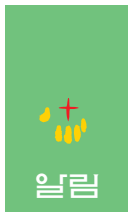
일정: 매월 첫째 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3월 28일 청년 이스라엘 9월 349만원 순례(1980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4월 21일 이스라엘 11월 419만원 요르단 4월 28일 성모발현지 13월 410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GCA 골프피팅 스튜디오 클럽/스윙/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가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 마산회원구 봉양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 ☎ 055.282.1872 (18홀 72타) 김중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	--	--	---



젊은이 기도학교(진주)

대상: 2030 젊은이
일시: 매월 첫째주 (토) 17:00~(주일) 14:00
문의: 작은자매 관상선교수녀원 010·8246·9460

2020년 살레시오 수도회 겨울 성소대피정

대상: 예비 고3, 성인 일반(만 33세 이하)
일시: 2020년 1월 31일(금)~2월 2일(주일)
장소: 돈보스코청소년센터(서울 여의대방로 65)
문의: 010·5159·3949, 010·3894·1332

기 타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3071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2020년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전진상교육관 02·726·0070~1
www.jjscen.or.kr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29회 겨울음악학교

일시: 2월 6일(목)~8일(토)
장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대림과 성탄 전례 및 전례 특송곡
신청: 1월 30일(목)
문의: 051·517·8241~2 www.bcmusic.or.kr

오륜대 토요교회사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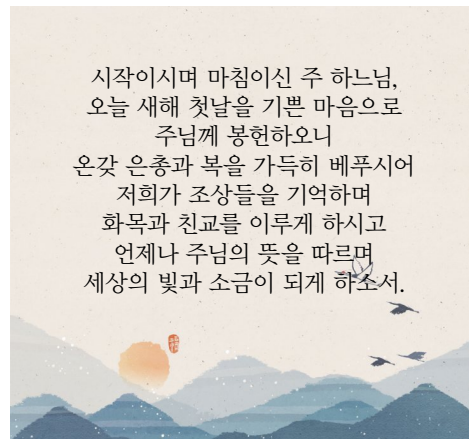
개강미사: 3월 7일(토) 14:00
기간: 3월 7일~10월 31일 매(토) 15:00~17:00(60시간)
수강료: 20만 원 ※선착순 60명에 한함
한문식 신부: 사건별로 보는 세계 교회사
전수홍 신부: 슬라이드로 보는 세계 교회사
한건 신부: 한국 교회사
문의: 051·515·003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함안 안나의 집 입소 안내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시설 등급자
주소: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설날 연휴 쉽니다.					
창원지구	설날 연휴 쉽니다.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월 2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대상: (만) 19세~35세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4/20,5/6(299만원) ◆ 이태리일주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가톨릭신문 투어 ▶ 3/9 발칸반도(매주교리예) 12일 355만원 ▶ 3/12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원~ ▶ 3/17 티카 그리스 13일 389만원 ▶ 3/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	--	--	--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문정임 켄마 시인/가톨릭문인회

말씀이 죽어가고 있다, 비명도 없이 결혼예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졸업식장에서... 가톨릭 전례의 꽃인 거룩한 미사에서도 강론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복음 낭독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가?

주례사 비유라는 말은 문학 수사에서 공치사를 남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하필 그날 굳이 안 좋은 말을 입에 올릴 일이 뭐가 있겠나 싫어 좋은 말만 나열하다 보면 뻔한 말이 3단 조화 같아지고 만다. 닳고 닳아버린 ‘졸업은 시작’이라는 말, 백 가지도 넘게 늘어놓는 철부지 신랑신부의 맹세는 더 이상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함이 아닐까. 성당 나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장식용 브로치 하나 달았다 떼었다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지난해 3월 한 신부님 부친의 장례미사에 참석하였다. 평소 상주 신부님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식장의 반 정도는 신부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론 추도는 이진수 신부님께서 하셨다. “저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에 일생이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신부에게 물었을 때 그는 담담하게 ‘거룩한 변용이었지’라고 했습니다.”라며 이야기를 풀어 나가셨다. 80평생 땅과 함께 사셨다가, 저녁 곡기를 조금 취하고 주무시듯 영면하셨다. 티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셨듯이 잠드셨고 구름 속에 드셨다. 농부이자 공소회장님은 집(오이코스)을 사제관으로 쓰셨다. 구름 속으로, 하느님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셨고, 기도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마저도 기도해 주고 계신 듯 ‘요셉주보성인의 날’에 가시는 분은 정녕 기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이셨다 라고. 상주와의 우정, 사제로서의 죽음과 구원에 관한 생각을 절제된 언어로 알기 쉽게 들려주셨다.

뒤이어 전 가톨릭농민회 회장이었던 강기갑 의원도 간절하지만 간결하게 애도하셨다. “고인은 평생 농부로 사신 분인데 그분의 농사는 씨앗, 가톨릭농민회운동과 자식, 이 세 가지였는데 다 잘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말씀을 어찌 살려낼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날 뜻밖의 좋은 예시를 얻었다. 장례미사 식장은 좁아서... 조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성체를 겨우 영하고 바깥으로 나오니, 문산성당 오래되고 잘 손질된 프락을 봄 햇살도 도탑게 어루만지고 있었다.